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⑨

여래행은 법신 반야 해탈덕 동시에 갖춰

行如來行 入如來室 著如來衣 坐如來座 則以如來莊嚴而自莊嚴 獲得六根淸淨 入佛境界 於一切法無所染著 一切佛法皆現在前 成就念佛三昧

여래행을 행하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고,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는다면 여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하여 육근이 청정함을 얻고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 일체법에서 번뇌의 오염과 집착이 없게 된다. 이때 일체 불법이 모두 목전에 나타나 염불삼매를 성취하게 된다.

이 문장도 역시 경전에서 인용하여 그 공덕을 찬탄하고 있다. 앞에서 원돈지관을 닦아 대승에 안주하면 생각 생각이 살바야해로 흘러들어간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여래행을 행하는 것이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여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여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여래의 하나의 행은 여래행 아닌 것이 없어 하나의 행이 일체행이며 일체행이 하나의 행인 것이다. 수행자가 이 경지에 도달하면 그 행이 여래와 같기 때문에 여래행을 행한다고 말한다.

여래의 옷은 인욕과 유화이며, 여래의 자리는 모든 법이 공적함이며, 여래의 집은 대자비이다. 이를 다시 분별하면 동일하지 않다. 대자비의 집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측면에선 법신에 해당되고, 중생을 교화하는 편에선 해탈에 해당되고, 중생을 동체대비로 귀결시키는 것은 반야라고 한다.

인욕의 옷이란 가리고 덮는다는 의미이다. 가령 인욕의 주체의 편에서 말한다면 반야이고, 덮는 대상은 법신이며, 중생수준에 맞추어 제도하는 것은 해탈이 된다.

모든 법의 공한 자리에 앉는 것도 앉는 주체와 앉는 대상이 있다. 앉는 주체는 반야이고, 앉는 대상은 법신이며, 몸과 좌석이 그윽이 하나로 합하면 해탈이 된다.

경전에서는 "여래는 옷으로서 덮는다"라고 하였고 또 "어깨에 짐을 걸머진다"라고 하였으며 다시 "여래와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총체적으로 성인들이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편에서 여래의 집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화문구(法華文句)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자비가 으뜸이고,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인욕이 기초가 되며, 설법의 근본은 아집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일체 선법은 자비가 근본이고 인욕이 제일이며 도는 분별상이 없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하였다. 이 모두는 여래의 집에 갖추고 있는 활동능력에 대해 밝힌 것이다.

지금 수행자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 여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생각 생각이 성인의 부류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범부나 소승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여래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는 것이다.

여래의 장엄은 복과 지혜의 두 가지 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육바라밀은 장엄하는 주체이고, 법신은 장엄의 대상이며, 주체와 대상이 두 모습이 아닌 것은 오묘한 장엄이다.

이를 지관의 편에서 본다면 일심삼관(一心三觀)은 장엄하는 주체이고, 일경삼제(一境三諦)는 장엄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부처님은 대승에 안주하여 그가 얻은 법에 걸맞게 정혜력으로 장엄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의미에 해당된다.

말세중생은 일심삼관을 수행하여 여래의 행을 행함으로써 여래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려 하지만 근기가 천박하여 이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염불수행을 한다면 비교적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염불할 때에 일심삼관으로 염불하는 마음이 공적하면 공관에 해당되고, 염불대상의 부처님이 분명히 떠오르는 것은 가관이고,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닌 것은 중도관이며, 염불이 일심으로 혼란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일심삼관이 자연스럽게 목전에 나타나게 된다. 이때에 생각이 말과 같고 말이 생각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여래행을 행하는 것이다.

염불할 때에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외부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욕행을 행하는 것이 되며, 염불할 때에 자리이타를 발원하면 이것이 대자비의 집이 되며, 염불할 때에 생각 생각이 부처님과 서로 호응하여 일체가 공이라고 관찰하고 티끌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여래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

아미타는 무량광과 무량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무량광은 지혜의 덕으로 장엄한 것이며, 무량수는 복덕으로 장엄한 것이며, 무량광과 무량수가 두 모습이 아닌 것은 오묘한 장엄이다.

한 구절의 아미타로 여래의 행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여래를 장엄한 것이며, 한 구절의 아미타는 마니보배와 같아서 면면이 모두 원만하며, 한 구절의 아미타는 감로수와 같아서 방울방울 단맛이 난다. 명철한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시험해보기 바란다.

육근청정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우리 중생들의 안근은 물질경계에 오염되고 이근은 소리경계에 오염되고 의근은 법진경계에 오염된다. 따라서 보는 것은 색을 초월하지 못하고 듣는 것은 소리를 초월하지 못하여 육근 모두가 청정하지 못하다.

가령 수행인이 원교의 십신(十信)가운데 최초의 신심위에서 삼계내의 견혹을 단절하면 진리가 드러나고, 두 번째 신심위로 부터 칠곱 번째 신심위까지 이르면 사혹을 끝까지 다 끊고 삼계육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때에 육근이 상호간에 걸림 없이 작용하여 안근은 색경만 볼 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설근은 맛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법진까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근이 청정하여 부처의 경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경계는 공가중 삼관으로 삼제의 이치가 원만한 대적멸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다면 의식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또 "세간을 관찰하기를 꿈속의 일처럼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일체법에 오염되거나 집착이 없는 것이다.

일체의 좋은 경계에 탐애심을 일으키지 않고 일체 악한 경계에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아 호오가 평등하고 증오심과 애착이 한결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해야 된다. 이때에 일체 불법 모두가 목전에 나타나게 되어 염불삼매를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일심삼관으로 생각 생각 부처님과 상응하여 크게 자유자재한 경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일체 경계에 탐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호오가 평등하고 증오·애착심 한결같아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4) 수습위(修習位)

⑦ 원행지(遠行地)

앞에서 제법은 인연으로 생기한 무상(無常, 연기즉공)의 이치를 심오하게 관찰하였으므로 일체의 외부경계는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이 같은 무상의 이치에 안주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인위적인 수행력을 의지해야만 이 선정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행위는 진여의 이치를 깨우친 측면에선 이미 구경의 무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 수행이 유위로 유지될 뿐입니다.

⑧ 부동지(不動智)

무분별지가 인위적인 수행력 없이도 임의로 상속하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과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양에도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부동지라고 합니다. '무성론(無性論)'에서는 이 경지를 두고 "일체의 유상(有相)과 일체의 가행(加行)이 이 경지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⑨ 선혜지(善彗地)

이 수행지에선 네 가지 걸림없는 완전한 지혜, 사무애해(四無碍解)를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애란 첫 번째는 일체법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법구(法句)를 명료하게 아는 법무애해(法無碍解), 두 번째는 일체법의 의미를 장애없이 알기 때문에 의미[義相]를 통달하는 의무애해(義無碍解), 세 번째는 표현하는 언어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언사를 분별하는 사무애해(辭無碍解), 네 번째는 변재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변설하는 변무애해(辨無碍解) 입니다. 이 지혜는 오묘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선혜지라고 합니다.

⑩ 법운지(法雲地)

이 수행지는 항구하게 진여법성에 안주하는 대법신(大法身)을 증득하여 자유자재함을 빠짐없이 갖춘 경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지는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자유자재한 이익의 작용을 온 대지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운지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십지는 유위와 무위의 공덕을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 성질을 삼습니다. (참고 <성유식론> 제9권)

제십지 가운데서 최종의 마음인 출심(出心)은 마치 일체의 사물을 끊고 파괴할 수 있는 금강(金剛)과도 같으므로 이를 비유해서 금강심(金剛心)이라고 합니다. 이 출심은 선정력이 특수하기 때문에 금강유심(金剛喩定)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등각위(等覺位)를 말합니다. 이 금강심의 무간도(無間道)에서 아직 미처 끊지 못했던 모든 유루번뇌의 종자를 찰나에 단박 끊고 이로부터 극과(極果)인 불과를 증득하여 수행위차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구경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張如舟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참회의 마음으로 종도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정대행 지도

원로의장 범아
원로의원 청산 무량 비담 무안 월우 호당
법계고시위원장 보각
총무원장 능인
중앙종회의장 만봉
호계원장 해천
교육원장 법승
포교원장 법륜
사정원장 정진
문화원장 호암
중앙선원장 지공
연수원장 장원

총무부장 보문
재무부장 도안
교육부장 도율
기획부장 동법
사회부장 지명
포교부장 혜천
감찰부장 무변
문화부장 도명
규정부장 대웅
호법부장 자은
비구니부장 해덕

사서실장 혜각
예경실장 진여
감찰국장 혜오
문화국장 호산
조사국장 원당
법사위원장 인황
서울종무원장 혜운
경기종무원장 용산
강원도종무원장 정광
경남종무원장 도문

- 중앙종회의원 -

도천. 정도. 호암. 묘법. 도법. 지도. 진만. 지우. 보타. 홍일. 석강. 주현. 혜성. 성월. 혜명. 정인. 수공. 법천. 보명. 정산. 남호. 무안. 법성. 일봉. 덕운. 여래. 지호. 법공. 권해. 상호. 혜원. 원각. 정호. 도신. 만공. 혜공. 해광. 도각. 법운.

* 저희 종단은 대한불교연합조계종과는 무관한 종단임을 밝힙니다.

■총무원 :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 대승사
■행정실 : 053)325-5288 / 종무실 : 010-2013-0082